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③

### | 옮긴이 박진환 |

서울대학교에서 윤리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경상대 사범대학에서 2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몽클레어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매튜 립먼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그 후 2년간 도덕적 판단교육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철학교육 아카데미’의 총무를 맡아 고차적 사고력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를 10년간 해왔으며, 현재 한국윤리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사고력 관련 저서로는 ‘열려라 생각 주머니 4~6학년 교재 및 지도서’(양산 교육청 및 경남 교육청)를 감수했고, 초·중등 도덕 교과서를 집필했다. 또한 미국 몽클레어 대학의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가 출판한 ‘사고력 교육 시리즈’(철학교육 아카데미 출판부) 번역에 참여하고 립먼 교수의 사고력 교육 이론서인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을 번역 출간했으며 ‘생각 없는 일기, 백날 써봐야 소용없다’라는 책을 집필하는 등 고차적 사고력 교육의 확산에 애쓰고 있다.

### | 옮긴이 김혜숙 |

서울교대를 나와 초등학교에서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으며 어린이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에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10여 년간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립먼 교수의 사고력 교육 이론서인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을 번역 출간했으며 현재 경상대에서 윤리교육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다

The Thinker's Guides series  
by Richard Paul and Linda Elder

©2006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The copyright for any and all editions of the Thinker's Guides in the Thinker's Guides series is held exclusively by the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Korean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HOTECH(Higher-Order Thinking Education Center).

Permission to reprint any and all pages in this document is allowed only through authorization by the authors, Richard Paul or Linda Elder,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과의 독점 계약으로 HOTECH(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이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생각속의 기술 본술의 기술 ③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 How to Write a paragraph |

## | 역자 서문 |

현재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다양한 가치가 뒤섞여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 ‘합당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고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생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의 강조, 학교에서의 사고력 교육 강조, 대학입시에서의 논술 강조는 모두 이러한 해법을 향한 노력이다.

세계 학계에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바탕이 되는 주된 이론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두 접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에니스(Robert Ennis), 립맨(Mattew Lipman)과 같은 철학자는 주로 논리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반면 퍼킨스(D. N. Perkins), 스텐버그(Robert J. Sternberg)와 같은 심리학자는 인지심리학의 지능개념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두 가지 접근을 두루 연구하여 두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조화시키는 데 주력한 학자이면서 교육 실천가다. 특히 생각이나 학습에 기초가 되는 읽기와 쓰기에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다.

리처드 폴 박사가 주축이 되어 30여 년간 이끌어온 ‘비판적 사고 재단(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은 미국 공인 우수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 시리즈는 비판적 사고 재단의 ‘The Thinker’s Guide Series’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같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자에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히 판단함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해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생각의 기본 구조와 학습의 근본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공부를 잘 하고 싶은 학생과 학생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교사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셋째, 생각, 학습, 읽기, 쓰기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논술에 대해 그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국내 논술 관련 책자들을 보면, 지나치게 어려워 학생과 교사들이 흥미를 잃게 하거나 지나치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논술과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며, 국내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3편인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에서는 1편에서 다루었던 분석적 사고를 글쓰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글을 제대로 쓰는 것인지를 알려주며 사례들을 통하여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편에서 다루었던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와 함께 보면 분석적으로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논술의 본질이다. 이 책이 국내 많은 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3월 역자

# |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

## ◎ 왜 글쓰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가

글쓰기가 '학생이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글쓰기가 학습 내용을 제대로 배우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사실과 씨름해야 하고, 거친 정보를 다듬을 줄 알아야 한다. 또 막연한 개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쓰기 기술이 필요하다. 즉, 잘 배우기 위해서는 써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간행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쓰기 지도가 아주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학 1학년 중에는 논증을 분석하거나 정보를 종합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또 그들이 쓴 리포트는 틀린 문법이나 어휘로 가득하다. 요즘 학생들에게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교사들이 사고력과 글쓰기와 학습의 관계를 잘 모른다.

둘째, 교사들이 쓰기 과제를 검사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학생들이 글을 잘 쓰려면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사고 능력에 바탕을 둔 쓰기 능력이 있어야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잘 쓸 수 있어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즉, 사고력과 쓰기와 학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교사들조차 이런 관계를 정확히 모른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교사들이 사고력과 쓰기

와 학습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분석적 사고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은 사고력과 효과적인 글쓰기와 효과적인 학습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교사가 학생의 글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쓰기 능력은 다른 지적 능력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좋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얻어진다. 만약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습과 글쓰기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또한 분석적·비판적 사고의 도구를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습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것이다.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이 책은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시리즈의 다른 책들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와 더욱 밀접하다. 이 세 책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고 학습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 역자서문 |

---

### 제1부 이론

이 책의 전제 · 10

목적을 가지고 써라 · 10

제대로 글을 써라 · 12

즉흥적인 글쓰기는 피하라 · 12

반성적 글쓰기를 하라 · 13

생각을 훈련하고 글을 써라 · 14

문장 쓰기 · 16

학습을 위한 글쓰기 · 16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글쓰기 · 17

중심개념을 다른 중심개념들과 연결하기 · 18

학문을 위한 글쓰기 · 19

글쓰기 작업 · 20

수사적 글쓰기의 문제점 · 22



## 제2부 실제

- ‘제대로 글쓰기’ 연습 · 24
- 문장 바꿔 쓰기와 명료화하기 · 26
  - 문장 바꿔 쓰기 · 26
  - 명료화 전략 · 27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 28
  - 짧은 인용문 바꿔 쓰기와 명료화하기 · 30
  - 긴 인용문 바꿔 쓰기와 주제 명료화하기 · 38
  - 「인간의 의미 추구」 · 38
  - 「자유」 · 44
- 갈등하는 개념 탐색하기 · 50
- 교과의 중심개념 탐색하기 · 54
- 글쓴이의 생각을 분석하기 · 61
-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하기 · 68

## 부록

- A 사설의 논리 · 70
- B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하기 · 72
- C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방법 · 74

요약 · 76



## 제1부 이론

### ❖ 이 책의 전제

글쓰기는 학습에 꼭 필요하다. 쓰기 없이는 교육받을 수도 없고 글로써 의사 소통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적 훈련이 필요하다. 복잡한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글쓰기에도 기초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글쓰기의 기초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생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기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 ❖ 목적을 가지고 써라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쓰지 않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쓴다. 그뿐 아니라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쓴다.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도 쓰는 방법을 달리한다. 하지만 모든 글쓰기에는 보편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표현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

이 알 수 있도록 공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번역)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옮기는 것(번역)이다. 자신이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게 글로 번역하는 일은 분석적, 평가적, 창의적 활동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번역작업을 잘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낱말을 잘 선택하고 조합하여 의도한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물론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나 순수한 쾌락을 위해서 글을 쓴다면 남이 이해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단순히 글을 쓰는 즐거움 때문에 쓸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쓴 글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글을 쓰는 의도는 다양하다.

- 즐거움을 위해
- 단순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 특수한 기술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 중요한 입장이나 논증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고려해보도록 고무하기 위해
- 교과와 학습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한다. 다음을 보고 글을 쓰는 의도가 얼마나 다양한지 생각해보라.

- 선거운동 문구를 작성하는 방송 컨설턴트
- 독자에게 흥미거리 기사를 제공해야 하는 신문 편집자
- 광고 문안을 작성하는 카피라이터
-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학자
- 시를 쓰는 시인
-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

분명히 글을 쓰는 의도에 따라 글쓰기 기술도 다르다. 하지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기초적인 기술이 몇 가지 필요하다. 우리는 이 기술을 ‘제대로 글쓰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 ‘제대로 글쓰기’ 기술은 생각을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그 기술은 학습방법을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통찰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도 통찰하게 해준다.

## 제대로 글을 써라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쓸 가치가 있는 주제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둘째, 그 주제에 대해서 표현할 만한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는가?

글을 쓰는 의도는 다양하지만 깊이 있고 중요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글쓰기’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 책의 초점은 바로 이 도구와 기술의 안내에 있다.

## 즉흥적인 글쓰기는 피하라

즉흥적으로 쓴 글은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지 않고 의견과 사실이 분명히 구별되지도 않는다.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조각나 있기 때문에 글도 조각이 나 있다.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만이 깊이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관점들과 비교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모른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를 비롯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즉흥적인 마음에서 생겨난 지식은 대부분 무비판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글을 쓸 때 생각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반성하고 평가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 반성적인 글쓰기를 하라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 그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글에 제대로 담겼는지 되돌아본다. 자신의 생각과 독자의 생각을 명확히 구분한다.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글을 쓴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글의 내용을 연결해본다.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명료성과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 등에 따라 평가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쓰기를 통해 배운다. 반성적인 사람은 반성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글쓰기를 향상시킨다.

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들린다면 의도적으로 중심 문장을 세세히 설명하고, 예를 들고, 해설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글을 독자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이 쓴 글을 반성해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다.

- 나는 나의 중심생각을 명확하게 진술했는가?
- 나는 나의 중심생각을 자세하게 설명했는가?
- 나는 독자들에게 나의 중심생각을 이해시킬 만한 예를 들었는가?
- 나는 나의 중심생각을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은유와 유추를 사용해서 표현했는가?

만약 독자들이 자신의 관점에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면, 독자들의 신념과 자신의 신념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독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 들어가 그들의 신념과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독자들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 생각을 훈련하고 글을 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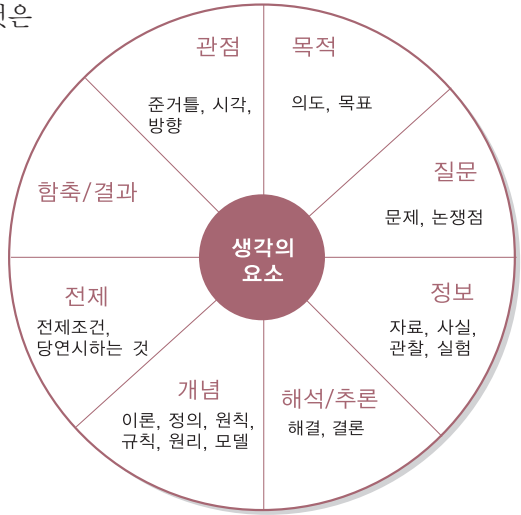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커가는지 아는가?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편견을 아는가? 자신의 생각이 얼마큼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는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는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쓰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의 관점도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장점과 단점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차적인 사고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 밖에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선 생각에는 여덟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생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제**에 바탕을 둔 **관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는 **함축된** 것이 있다. 또한 **정보**와 사실과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개념**과 아이디어와 이론들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질문**에 답을 하고 문제와 쟁점을 **해결(해석·추론)**한다.

그러므로 결국 생각한다라는 것은

- 목적을 가지고
- 질문을 하며
- 정보를 활용하여
- 추론을 하고
- 개념을 사용하며
- 전제를 갖고
- 함축을 가지며
- 관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여덟 가지 기본요소는 생각을 잘 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적 도구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목적을 가지고 추론을 하며, 일정한 관점 안에서 생각한다. 동시에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독자들도 나름의 목적과 질문과 전제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독자들의 관점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의 논리를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사고체계를 잘 알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다.

‘쓰기’와 ‘쓰기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사이를 효과적으로 왕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글에 잘 담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에 글을 잘 새길 수도 있다. 생각하기를 통해 글쓰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만 글쓰기를 바꿀 수 있다.

## 🌸 문장 쓰기

글 속의 각 문장은 다른 문장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문장과 그 문장을 이루는 낱말들도 글의 목적에 맞아야 한다.

쓰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더 큰 맥락 안에 넣고 그것이 전체와 잘 어울리는지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장을 쓸 때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야 한다.

- 이 문장이 문단의 다른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이 문장은 이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 학습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는 하나의 학습 경험이다. 글쓰기는 본질적인 의미를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체계적인 과정이다. 글을 잘 쓸 줄 알아야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 하듯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다. 실제로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다. 핵심개념을 알고 그것을 종이 위에 표현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이 생각 속에서 작용하게 되고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쓰기를 제대로 배우려면 많은 것을 형편없이 쓰는 것보다 적은 양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는 몇 줄일 수도 있고 문단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는 역작일 수도 있다. 글쓰기로 스스로를 완전히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학습에 필요한 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갈등하는 관점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학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말이다.

글쓰기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글쓰기를 학습해야 한다. 왜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통합하지 않으면 생각은 완고해지고 정체되기 쉽다. 그러므로 계속 글을 쓰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넓혀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생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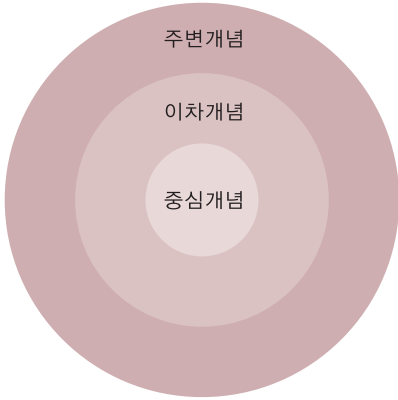
##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글쓰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을 생각 속에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식을 글로 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 속에서 지식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지식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재를 읽고 그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개념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 내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글로 옮겨 보아야 한다.

모든 지식은 의미의 **체계** 속에 존재한다. 중심개념이 있고, 이차개념, 주변개념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중심개념이 가운데 있고 이차개념과 주변개념이 차례대로 그려진 동심원을 생각해보자. 중심개념은 이차개념과 주변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개념을 익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심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글로 써보아야 한다. 또한 개념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 전체적 맥락 속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도 써 보아야 한다. 전체 체계 속에서 생각하고 쓸 수 있어야 그 체계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역사의 중심개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과학의 중심개념을 파악해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쓸 수 있게 된다. 중심개념은 모든 지식체계의 핵심이다. 어떤 교과를 배우든 마찬가지이다. 중심개념은 배운 것을 기억하여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도 중요하다. 중심개념에 대해 써보

지 않고는 마음속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중심개념을 찾아 소화해 내야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늘어나고 쓸 수 있는 내용도 늘어나게 된다.



**중심 생각** 교과와 중심개념과 이차개념에 대해 써보는 것은 그 교과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 🌸 중심개념을 다른 중심개념과 연결하기

한 교과의 중심개념을 다른 교과의 중심개념과 연결시키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은 한 체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지식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중심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면 다른 중심개념도 이해하기가 쉽다. 한 체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른 체계 안에서 배우는 것을 돕는다. 글쓰기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모든 식물이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 동물학을 배울 때 모든 동물도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중심개념이 생물학과 동물학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심리학과 사회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학은 집단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학은 개인이 집단 규범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사회학은 사회적 삶의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준다.

이렇게 두 학문 각각의 중심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 학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습득한 지식을 현실세계에 잘 적용할 수 있다.

## 학문을 위한 글쓰기

학문 연구를 위해 글을 쓰려면 먼저 모든 학문이 사고의 **체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학문은 **체계들의 체계**이다. 특히 과학적 사고는 대규모 사고체계를 구성한다. 대규모 체계로서 과학은 그 안에 하위 체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체계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리학 등등의 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체계들의 체계이다.

그러나 과학이 과학적 사고를 이끄는 대부분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있는 데 반해, 어떤 학문은 그 안의 체계들이 서로 갈등하기도 한다. 철학, 심리학, 경제학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런 학문의 체계 속에는 여러 학파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 과학과 달리 철학적·심리학적·경제학적 체계는 자신의 학파를 위해 서로 대립한다. 서로 반박하는 학파들이 경쟁하고 있다.

학문적인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선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학문이 상호 지원적인 체계인지(예를 들면 수학, 과학), 아니면 갈등하는 체계(철학, 심리학, 경제학)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상호지원적인 체계인 경우에는 그 체계에 익숙해야 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한다. 갈등하는 체계인 경우에는 각 분야가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그 체계에 익숙해지게 된다. 물론 갈등체계를 탐구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두 체계가 서로 갈등한다 하

더라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어떤 사고 체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예를 들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한다면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과학자들이 만족할 만큼 쓸 수 있어야 한다. 역사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여러 학문 사이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겹치고 갈등하는지를 글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글쓰기 작업

글쓰기는 지적인 작업이다. 그러므로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우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또한 그것이 글쓰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점이 부족하다.

글쓰기 작업은 다음과 같이 비유될 수 있다. 한 문단을 잘 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기초가 필요하고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 집에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1층은 기초에 맞아야 한다. 2층은 1층에 맞아야 한다. 계단이 있어서 1, 2층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에는 설계 작업과 공사가 모두 다 필요하다.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어떻게 설계하고 공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절로 알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도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설계하고 쓰는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한다.

## 글을 쓸 때 질문해야 할 것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쓰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쓰는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한다. 무엇을 썼는지 평가하는 질문도 한다. 자신의 생각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는지 질문한다. 다음은 숙련된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 왜 이것을 쓰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독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 내가 쓴 것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 의미도 정확히 모르면서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 내가 쓴 글이 모호하다면 어떻게 명확하고 정밀하게 고칠 수 있는가?
- 내가 사용한 중심 낱말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사전이 필요한가?
- 어떤 낱말을 특이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않은가? 그 특이한 의미에 대해 독자들에게 설명했는가?
-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는가? 아니면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 중심생각이 명료한가?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 나의 글이 어떤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나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더 필요한 정보는 없는가?

글쓰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글을 쓰면 빈약한 글이 된다. 학생들은 대부분 글쓰기를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써야 할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라.’

이와 달리 ‘제대로 글쓰기’ 작업은

첫째,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둘째, 그 주제에 대해서 쓸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

이 작업은 아주 높은 수준의 선택 작업이다.

다음은 제대로 글쓰기 활동에 필요한 다섯 가지 활동이다.

- 중요한 주제나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 그 주제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독자들의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준다.
- 한두 가지 유추나 은유를 들어 자신의 글과 독자들의 삶의 경험이 연결되도록 돕는다.

## 수사적 글쓰기의 문제점

제대로 글쓰기의 방식을 배우지 않고 문장 형태나 문장 구조, 혹은 수사법을 강조해서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사적인 글쓰기는 일종의 지적인 파산이다. 지적으로 빈약한 사람들도 수사적인 글은 잘 쓴다. 광고 역시 수사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내용 없는 정치 연설도 수사적으로는 잘 쓰인 것이다. 물론 현란하고 자기 기만적인 글이 성공할 때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2002년 8월 4일자 교육 특집에서 대학시험의 새로운 영역인 ‘20분 글쓰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시험에서 출제한 쓰기 문제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다.”였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언제나’가 있다.”라든가 “‘절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등과 같은 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이 같은 글쓰기 주제는 로르샤흐 테스트<sup>1)</sup>와 같다.

이런 시험문제들은 지적인 과제가 아니다. 추론할 쟁점도 없다. 따라서 답을 쓸 때 지적인 감각을 사용하여 추론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나 문장 스타일을 사용하여 뽑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제대로 글쓰기는 중요한 주제나 지적인 과제로 시작해야 한다. 글쓰기는 문체나 수사법보다는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대로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생각을 익히게 해준다. 제대로 글쓰기 과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제 기본적인 활동을 몇 가지 알아보자.

1) 역자 주 : 잉크얼룩 같은 아무 뜻도 없는 무늬를 해석시켜 상대방의 성격 따위를 판단하는 검사.



## 제2부 실제

### ❖ ‘제대로 글쓰기’ 연습

지금까지 ‘제대로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제대로 글쓰기의 실제 전략을 다룰 차례다. 이곳에 제시된 문제를 모두 제대로 연습하면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말하려는 주제를 선택하고, 말할 내용을 정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제대로 글쓰기에서 글쓴이는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며 어떻게 그곳에 도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제대로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분석적 사고)의 원리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생각의 요소와 표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각의 요소는 생각을 구성 요소로 나눈 것으로 목적, 질문, 정보, 추론, 개념, 전제, 함축, 관점 등이다. 생각의 표준은 명료성과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 등으로 생각을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sup>2)</sup> 제대로 글쓰기를 잘 하려면 먼저 생각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 이 비판적 사고 과정은 이 장의 끝부분에서 연습문제로 다룰 것이다.

2) 역자 주 : 이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실제 연습에서는 주로 위대한 사상이 담긴 고전과 인용문을 활용하였다. 이것을 제대로 글쓰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명문장에 담긴 가치 있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쓰기 과정에 성공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 연습문제들은 주로 명료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명료화 기술은 비판적 사고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로 진술하고, 명료화하고, 예를 들고, 생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쓰기 공부의 단계는 (1) 주제를 정하는 것이고, (2)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 (3) 명확하고 정밀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생각을 잘 하려면 최소한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혼란한 생각은 지식이나 이해의 바탕이 될 수 없다.

문장이나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말로 바꿔 보는 것 즉, 문장 바꿔 쓰기가 이 책이 제안하는 핵심이다. 위대한 사상가가 생각한 것을 자신의 말로 쓸 수 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장 바꿔 쓰기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사상가의 생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바꿔 쓰기에는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제대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습문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 답도 하나의 보기로 제시하였다. 우선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라. 물론 간단한 연습문제로 시작해서 차차 복잡한 문제로 제시하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간단한 문제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소개한 글은 기본적인 유형이다. 이 글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생각하고 배우고 쓰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문장 바꿔 쓰기와 명료화하기

### • 문장 바꿔쓰기

문장을 바꿔 쓴다는 것은 **낱말이나 구절, 문장 또는 글을 보다 충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어떤 글을 자신의 말로 충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만큼 그 말이나 문장,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 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념이나 문장, 구절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는 문장 바꿔 쓰기를 하는 것이다.

문장을 바꿔 쓴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심 문장이나 문단을 효과적으로 바꿔 쓰기 위해서는 먼저 문장이나 문단 뒤에 숨겨진 중심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원 자료에 나타난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면서 그 생각을 다른 말로 적절히 옮길 수는 없다.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란 말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 말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른다. 사실 문장 바꿔 쓰기를 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문장 바꿔 쓰기라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또한 이것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림이나 음악, 소설, 시와 같은 다른 지적인 창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여러 형태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중요한 자료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문장 바꿔 쓰기를 자주 하다보면, 그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생각을

파악하는 감각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문장 바꿔 쓰기란 원래의 생각을 새로운 말로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낱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능한 여러 후보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상을 적절히 바꿔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길게 표현해야 한다. 문장 바꿔 쓰기를 **풀어헤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원래 문장에는 의미가 압축되어 있다. 문장 바꿔 쓰기는 압축된 의미를 생각의 요소로 나눠서 표현한다. 그래서 길게 표현된다. 문장 바꿔 쓰기에 압축은 없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중심생각을 파악한다. 문장 바꿔 쓰기는 마음에 드리워진 생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 준다. 피상적인 것이 판치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상에 대해 문장 바꿔 쓰기를 잘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 • 명료화 전략

제대로 글쓰기 기술에는 위와 같은 **명료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다음은 글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질문이다.

1. 중심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
2. 중심생각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3. 중심생각을 자신의 경험에서 **예**로 들 수 있는가?
4. 의미하는 것을 독자가 잘 이해하도록 **유추**나 **은유**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명료화 전략

### 1. 주제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능력

자기가 쓴 문장 속의 중심 생각을 정확히 진술할 수 없다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 2. 주제 문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중심 생각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과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개념을 연결시킬 수 없다.

### 3. 중심 생각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능력

자신이 표현한 것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이해한 것이다.

### 4.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은유나, 유추, 그림, 표 등으로 표현하는 능력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은유나 유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여전히 그것을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악을 영속시키는 사람만큼이나 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만큼 비윤리적이다.

자유란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주려 하지 않는다면 너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윌리엄 앨런 화이트(William Allen White)

▶ 네가 자유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왜 새로운 생각에 놀라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낡은 생각들에 놀란다.

존 케이지(John Cage)

▶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온 생각에는 해로운 것 또는 위험한 것이 많다. 오래된 생각이 언제나 좋은 생각은 아니며, 새로운 생각이 언제나 나쁜 생각은 아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만 행사되어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 정부의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중지시키는 일에서만 필요하다.

선동가들의 목적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른 집단의 사람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것이다.

앨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 선동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다른 집단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정당한 대우를 할 가치가 없음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목동은 언제나 양의 목적이 목동의 목적임을 설득하려 한다.

스텐달(Stendhal)

▶ 대중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 대중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믿게 하려 한다.

## • 짧은 인용문 바꿔 쓰기 and 명료화하기

문장을 읽으면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전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이것을 **처음 생각**이라고 하자. 우선 문장을 읽고 이 **처음 생각**을 쓰는 것이 문장 바꿔 쓰기 연습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비평적 관점에서 다시 써본다. 비평한다는 것은 내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연습문장에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아래의 두 예시자료에 나오는 '민주주의' 나 '권력' 과 같은 개념- 문장을 바꿔 쓰기 전에 먼저 그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짧은 인용문을 연습문제로 제시하였다. 모든 문장을 빠뜨림 없이 연습해보기 바란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음 생각을 써라. 그런 다음 인용문이 함축하고 있는 생각을 풀어내어 문장을 길게 써보라. 아래의 예시 자료에는 처음 생각에 대한 보기를 생략하였다.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통치된다.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이 국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산되어 있을 때 존재한다. 즉,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참여로 법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수의 사람이 -국민 중 소수가 부유하다거나 영향력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보다 권리를 더 갖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권력은 부패한다. 특히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지배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챙기면 챙길수록 착취하려는 성향도 따라서 커진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인격적 성실성과 정직성을 잃게 된다.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이제 여러분이 아래의 인용문을 직접 바꿔 써보라.

머리에 투자한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지식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보통교육 없는 보통선거는 저주이다.

웨이랜드(H. L. Wayland)

학교는 학생들을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조화된 인격자로 키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특수한 지식의 획득보다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지금까지 문장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 중요한 인용문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보았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방식을 연습해보자.

## 2단계 : 문장 명료화하기

다음 모형을 사용하여 인용문을 해석하라.

1. 이 인용문의 핵심은 .....
2. 다시 말해 .....
3. 예를 들어 .....
4. 이해를 돕기 위해 은유나 유추를 사용해서 비유하자면 .....

## 2단계 : 문장 명료화하기의 보기

“현명한 생각이란 이미 수천 번 생각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생각을 진정 자신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생각들이 경험에 뿌리내릴 때까지 그들에 대해 성심껏 생각해보아야 한다.” *괴테(Goethe)*

1. 이 인용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생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롭다고 느껴지는 그 생각도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삶 속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꼼꼼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다시 말해 의미 있는 생각을 삶 속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해야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생각은 모두 이미 긴 역사를 통해 수천 번 탐구되고 사유되어 왔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그들을 우리의 생각에 들여와서 작용시키고 경험과 연결하여 행동 지침이 되



게 하면 된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고 신기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삶의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면 된다.

3.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말한 ‘음미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삶을 개선하려면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사람은 적다. 삶을 음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적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자신의 경험에 연결하는 사람도 소수다. 결국 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은유를 들어 비유해보자.** 모든 도시에는 도서관이 있고 그곳에는 중요한 생각과 경험이 담긴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책들을 무시하고 잘 읽지 않는다. 도서관이 생각을 얻는 곳이며, 그러한 생각을 통해 삶이 개선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스컴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생각들, 하지만 피상적일 수 있는 생각들을 찾기보다는 도서관이나 좋은 서점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걸쳐 검증되어온 깊이 있고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 2단계 : 문장 명료화하기의 연습

• 이제 직접 연습해 보자.

32쪽에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인용문을 해석하라.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에픽테투스(Epictetus)*

1. 이 인용문의 핵심은 .....
2. 다시 말해 .....
3. 예를 들어 .....
4. 이해를 돕기 위해 은유나 유추를 사용해서 비유하자면 .....

“모든 자유는 한 뭉치다. 한 가지가 보존되려면 모든 것이 보존되어야 한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지식의 첫 단계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실(Cecil)*

“아는 것을 연습하면 할수록 연습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

*젠킨(W. Jenkin)*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괴테(Goethe)

“완전히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타이런 에드워드(Tyron Edward)

“마음은 황폐한 땅과 같아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줘야 비옥해진다.”

레이놀드(Sir J. Reynold)

“학생이 한 가지라도 분명한 생각을 가졌거든 절망시키지 말라.”

에몬스(Nathaniel Emmons)

“편협한 마음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로슈푸코(Rochefoucauld)

“두 부류의 사람이 정치에서 성공한다. 원칙은 없지만 재능은 뛰어난 사람이거나 재능은 없으나 하나의 원칙, 즉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원칙은 있는 사람이다.”

필립스(Wendell Philips)

“권력 없는 정의는 비효율적이고 정의 없는 권력은 폭군이다.”

파스칼(Pascal)

“결정적이고 극단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나치도록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그것이 법적인 처벌이라 하더라도 정의를 잃는 것이다.”

유니우스(Junius)

“생각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다. 아마도 이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

포드(Henry Ford)

“생각이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한 생각을 종이에 쓰면 다른 생각이 나오고 한 페이지를 다 쓸 때까지 계속된다…… 생각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면 쓰기를 배울 수 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너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살라(G. A. Sala)

“우리의 생각은 그 목적이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현명한 생각은 이미 수천 번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생각을 진정 자신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생각들이 자신의 경험에 뿌리내릴 때까지 성실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괴테(Goethe)

“사람의 핵심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 • 긴 인용문 바꿔 쓰기와 주제 명료화하기

더 긴 글을 가지고 연습해보자. 먼저 그 글에 담긴 생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라. 그리고 해석의 보기와 비교해보라. 이렇게 하다보면 글의 주제를 좀 더 잘 찾을 수 있다. 제시된 보기를 먼저 보지 말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보라. 첨부한 내용은 좀 더 연습하도록 수록한 것이다.

### 인간의 의미추구

**배경 정보** 다음 글은 프랭클(Victor E Frankle)이 쓴 ‘인간의 의미추구’(1959)에서 발췌했다. 프랭클 박사는 정신병리학자이며 신경생리학자로 아우슈비츠와 다른 나치 수용소에 감금된 바 있다. 그는 ‘로고테라피(logotherapy)’라는 이론을 개발하였는데, 이 이론은 삶의 고차적 의미를 찾으려 했던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애쓰고 투쟁하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내적 덧없음, 혹은 자신 속의 공허감에 빠져 있다. 내가 실존적 진공상태라고 부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 실존적인 진공상태는 주로 지루함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존적인 진공상태 때문에 자살을 한다. 때로 우리는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면 그 보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원초적 형태의 권력에의 의지는 돈에 대한 의지이다. 또한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면 쾌락에 매달리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물어야 할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가 질문하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각자의 의미는 각자의 삶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다. 그 질문에는 책임 있는 자만이 답할 수 있다. (pp.166~172)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

글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여 자신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테스트하라. 자신이 쓴 글과 보기를 비교하라.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애쓰고 투쟁하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내적 텅없음, 혹은 자신 속의 공허함에 빠져 있다. 내가 실존적 진공상태라고 부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 실존적인 진공상태는 주로 지루함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존적인 진공상태 때문에 자살을 한다.

때로 우리는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면 그 보상으로 권력을 추구하려고 한다. 가장 원초적 형태의 권력에의 의지는 돈에 대한 의지이다. 또한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면 쾌락에 매달리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물어야 할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가 질문하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각자의 의미는 각자의 삶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다. 그 질문에는 책임 있는 자만이 답할 수 있다.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애쓰고 투쟁하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다.

▶ 스트레스나 도전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삶의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써버려서는 안 된다. 대신에 그 정력을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찾는 데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내적 텅없음, 혹은 자신 속의 공허감에 빠져 있다. 내가 실존적 진공상태라고 부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다.

▶ 흔히 사람들은 삶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흥미로운 어떤 것, 삶의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어떤 것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이 실존적인 진공상태는 주로 지루함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존적인 진공상태 때문에 자살을 한다.

▶ 자신의 삶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지겨움, 지루함, 무관심,



냉담을 경험한다. 이 '공허한 실존'의 상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때로 우리는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면 그 보상으로 권력을 추구하려고 한다. 가장 원초적 형태의 권력에의 의지는 돈에 대한 의지이다. 또한 의미를 얻는 데 실패하면 쾌락에 매달리기도 한다.

▶ 사람들이 의미 있는 목표나 목적을 추구하지 못할 때는 그를 대신해서 통제와 지배를 추구한다. 가장 조야한 형태의 권력, 즉 부를 위한 부를 추구하기도 한다.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실패하면 공허한 쾌락에 대한 추구로 대신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물어야 할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가 질문하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각자의 의미는 각자의 삶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다. 그 질문에는 책임 있는 자만이 답할 수 있다.

▶ 결국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밝히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어떤 의미를 자신의 삶에 부여할 수 있는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가? 어떤 목표가 삶을 중요하게 만드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요약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정당해야 한다.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해야 할 책임과 양심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삶을 구성해가는 결정자로서 중요한 사람들이다. 또한 각자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완성하라.

1. 글의 주제를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주제의 진술)
2.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라. (주제의 상세화)
3. 주제에 대해 한두 가지 예를 들어라. (주제에 대한 예 들기)
4. 주제에 대해 은유나 유추를 들어보라.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 1. 주제의 진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목표를 찾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

### 2. 주제의 상세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삶에 싫증이 나 있다. 그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하지만 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나 스스로 창조해야 할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도전하고 목표를 선택하는 대신에 이미 정해진 의미를 자신의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

###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사람들은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대신에 권력과 돈, 재미, 흥분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

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의미 있고 합리적인 목적을 발전시켜나갈 때,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심대는 중요한 목적을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한다. 피상적인 관계나 사건에서 재미와 흥분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런 생활방식에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값싼 스릴을 위해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을 추구한다면(스포츠, 사진, 글쓰기, 정치적 운동, 연극) 자신들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삶을 지루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요하게 보이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사용한다.

####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삶의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은 굴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굴은 삶의 중요한 목표를 담을 수 있는 삶의 자료 같은 것이다. 그 자료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갖게 해준다. 굴을 통해서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로 중요한 것을 찾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 보상은 찬란하고 빛나며 진실하다.

## 자 유

**배경 정보** 다음의 글은 멩켄(H.L.Mencken)이 쓴 ‘편견’ (1919~1927)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멩켄의 저서는 문학성과 사회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멩켄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저널리스트로 꼽힌다.

나는 자유를 믿는다. 내가 의미하는 자유는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은 의미이다. 가장 허용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극단적 한계까지의 자유 말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생각하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가 자유롭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한 모두 말이다. 내가 보기에 그 반대에 대한 증거를 덜 책임은 경찰과 법률가, 신학자 혹은 이른바 바르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반대 사례에 대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 나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척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해왔던 모든 것-다양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적이다. 그들은 정직한 진리추구를 모두 방해한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선한 의지와 상식적인 예절에 반대한다. 그들의 이상은 동물 조련사, 주교, 육군 소장의 것과 같다. 나는 최후의 바보가 해변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을 반대할 것이다.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나는 자유를 믿는다. 내가 의미하는 자유는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은 의미이다. 가장 허용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극단적 한계까지의 자유 말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생각하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가 자유롭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한 모두 말이다.

내가 보기에 그 반대에 대한 증거를 뭤 책임은 경찰과 법률가, 신학자 혹은 이른바 바르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반대 사례에 대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

나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척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해왔던 모든 것-다양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적이다. 그들은 정직한 진리추구를 모두 방해한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선한 의지와 상식적인 예절에 반대한다. 그들의 이상은 동물 조련사, 주교, 육군 소장의 것과 같다. 나는 최후의 바보가 해변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을 반대할 것이다.

##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나는 자유를 믿는다. 내가 의미하는 자유는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은 의미이다. 가장 허용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극단적 한계까지의 자유 말이다.

▶ 나는 자유를 믿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자유란 오직 사회가 지지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누군가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생각하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가 자유롭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한 모두 말이다.

▶ 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말이다.

내가 보기에 그 반대에 대한 증거를 댈 책임은 경찰과 법률가, 신학자 혹은 이른바 바르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반대 사례에 대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

▶ 선택한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기본 권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로 경찰, 법률가, 신학자 혹은 이른바 자기는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런 자유권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야 한다. 증거를 댈 책임은 잘못된 행동을 한 피고인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인 경찰관과 법을 만든 정치인, 종교 지도자, 의로운 사람(예를 들어 스스로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이 져야 한다. 이 고소자들은 기본권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은 목소리로 증명해야 하며,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영원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의심도 넘어서는 증거를 대야 한다.

나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척할 수는 없다.

▶ 나는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주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회의적이다. 생각과 행동에 대한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해왔던 모든 것-다양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적이다. 그들은 모든 정직한 진리추구를 방해한다.

▶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고상한 생각은 내가 존중하는 세상의 모든 선, 내가 명예롭게 여기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다른 견해나 다른 방식이 없다면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무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선한 의지와 상식적인 예절에 반대한다. 그들의 이상은 동물 조련사, 주교, 육군 소장의 것과 같다.

▶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한다. 또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리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맞추어 진리를 왜곡한다. 그들은 보통 바르지 못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비윤리적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고 지배하려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배에 아무 말 없이 따르기를 바란다.

나는 최후의 바보가 해변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을 반대할 것이다.

▶ 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스럽고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상가들을 반대할 것이다. 최후의 바보나 천박한 사람이 이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

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보스러운 사람이나 천박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 1. 주제의 진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롭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주제의 상세화

의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편협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율적인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높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자유사회를 신봉하는 한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때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때는 이 행동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다양한 관점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하거나 행할 때 믿고 따를 수가 없다.

###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예를 들어 일부 어린이보호시설 직원들은 어린이 복지를 내세우면서 아이들



에게 중요한 정보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부모가 집을 청결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와 격리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국가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것은 대부분 그 보호시설의 참담한 양육 프로그램 때문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할 때 자주 편견을 사용한다. 자신들도 모르게 개인적 신념과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다. 마치 자신의 견해가 법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다.

####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이 글의 요점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 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러다가 이 새가 아주 강한 새에게 잡혀 족쇄를 달고 올가미에 묶여 새장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새와 같이 사람도 자유롭게 날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개성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각자가 가진 독특하고 개성적인 방식, 다양한 목적지, 대안적인 관점이 삶을 흥미롭게 한다. 이러한 본질적 자유가 부정되면 우리 모두는 올가미에 걸린 새처럼 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두 동일하고 편협한 마음과 확정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 🌸 **같등하는 개념 탐색하기**

이번에는 서로 같등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 소개할 개념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개념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매우 중요하다.

### 단 계

이 연습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의 단계를 이용하라.

#### 1. 같등하는 개념 두 가지를 찾아내라.

이 개념들은 글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글은 문학적,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과학적,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내용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 대 법, 민주주의 대 부, 권력 대 정의, 열정 대 객관성, 사랑 대 통제, 충성 대 편견, 사실 대 이데올로기, 자유 대 전통, 새것 대 낡은 것, 민족주의 대 국제주의, 정당정치인 대 외교정치인, 이상 대 현실 등이다.

#### 2. 자신이 선정한 두 개념이 같등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중요한 문제를 밝혀라.

3. 그 개념에 대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요점을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주제다.

#### 4. 주제를 상세화하라.

#### 5. 주제에 대한 예를 들어라.

#### 6.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을 시도하라.

#### 7.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대를 최소한 한 가지라도 생각해보라.

8. **그 반대에 대응해보라.** (양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 써보라.)
- 위의 3~6단계는 앞에서 살펴본 명료화 전략에 해당한다.

## 같은 개념 탐색하기의 보기

### 1. 대립되는 개념 두 가지를 찾아내라.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려는 두 개념은 자유와 법이다.

### 2. 자신이 선택한 두 개념이 같다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중요한 문제를 밝혀라.

자유는 사람들을 허용하고자 한다. 반면 법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막고자 한다.

### 3. 그 개념에 대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요점을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주제다.

법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인은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습의 보기로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내용 그 자체보다는 비유적 표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읽기 바란다.

### 4. 주제를 상세화하라.

현재 미국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법률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로 분류되는 행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단지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내리는 법은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종류의 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5. 주제에 대한 예를 들어라.

예를 들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인의 행동까지도 통제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라는 제목의 책에서 맥 윌리엄스는 75만 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 감옥에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300만 명 이상이 합의에 의한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이거나 보호관찰 상태에 있다. 또 400만 명 이상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고 있는 이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나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맥 윌리엄스의 말에 동의한다.

## 6. 주제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라.

법에 어긋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공공장소를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당황할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비윤리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정글에서 모든 동물에게 옷을 입도록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말과 개와 고양이가 바지와 셔츠를 입는다고 생각해보자. 동물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은 불합리한 것이다. 사람이 대중 앞에서 벌거벗는 행동은 당황스러운 사실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때도 있다. 다른 동물이 벌거벗은 것이 혐오스럽지 않듯이 인간이 벌거벗는 것도 또한 선천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은 아니다.<sup>3)</sup>

## 7.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대를 최소한 한 가지라도 생각해보라.

비록 많은 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은 결국 국

3)역자 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크다.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인이므로 이런 견해는 미국 문화가 가진 특징일 수도 있고 저자 나름의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다.

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생각에 반대할 수도 있다. 내 생각에 이러한 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비윤리적인 법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합리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8. 그 반대에 대응해보라. (양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 써보라.)**

나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자신만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동시에 나는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에는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입법에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협소한 사회 중심적 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지지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유엔의 인권선언 전부를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 두 선언이 일치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 교과 중심개념 탐색하기

이제 교과에서 중심개념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개념들은 학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한 삶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주로 중심개념에 초점을 맞춰 질문할 것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 진술하고, 상세화하고, 예를 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다보면 자신이 쓰고자 하는 교과에 대한 '제대로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다. 만약 생물학적으로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 광합성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가?
- 광합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가?
- 광합성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가?
- 광합성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추나 은유로 표현해볼 수 있는가?

위의 네 가지 질문을 민주주의, 방정식, 질량, 에너지, 화학반응, 이야기의 주인공이 직면한 핵심 문제, 이야기의 요점 및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모든 교과나 주제들은 각각의 개념 망이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심개념을 내면화해야 한다. 교과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과 내용과 개념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 1단계 : 중심개념 명료화하기

어떤 개념 X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연습해 보자.

X를 정의하면, \_\_\_\_\_

다시 말해, \_\_\_\_\_

예를 들면, \_\_\_\_\_

유추해서 설명하자면 X는 \_\_\_\_\_과 같다.

교과를 공부할 때 그 교과에서 자신이 이해한 주요 개념 다섯 가지를 위의 형식에 맞춰 써보라. 우선 다음 과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심개념을 찾아보라. 백과사전이나 다른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중심개념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항상 자신의 말로 개념의 의미를 써보라.

개념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쓴 다음에는 관련 교재나 다른 참고 도서를 읽어보라. 그 개념에 대해 그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신이 쓴 것을 평가해보라. 특히 교재의 설명과 자신이 정리한 것을 비교해보라.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다.

모든 학문은 그 학문에 바탕이 되는 중심개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글쓰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차개념을 배우기 전에 중심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교과의 중심개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쓰기 연습의 예를 소개할 것이다.

## 2단계 : 중심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하기

중심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라.

1. 개념의 의미를 간단하게 진술하라.
  2. 교과에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자세히 진술하라.
  3. 개념에 대한 예를 들어라.
  4. 개념을 다른 교과에 있는 유사한 개념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추나 은유를 사용하라.
  5. 그 개념을 같은 교과 내 다른 개념과 연결하라.
  6. 5번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라.
- 위의 1~4 단계는 앞에서 살펴본 명료화 전략에 해당한다.

다음은 위의 지침을 연습할 수 있는 모형이다.

1. X는 \_\_\_\_\_이다.
2. 다시 말해
3. 예를 들면
4. 유추해서 설명하자면 X는 \_\_\_\_\_과 같다
5. 이 개념은 이 교과의 \_\_\_\_\_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6.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단계 : 중심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하기의 보기 1

(역사의 중심개념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 1. 개념의 의미를 간단하게 진술하라.

역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과거의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 이해가 현재와 미래를 잘 사는 데 어떻



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 2. 교과에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진술하라.

역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며, 역사가와 같이 생각하는 능력이다. 역사적 사고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는 그것이 비록 하루일지라도 수백만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많은 일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 모든 역사는 연구하려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의 극히 일부만을 다룬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그들의 설명에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학자는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가와 군인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고, 어떤 사학자는 위대한 사상이나 예술에, 어떤 사람은 기술과 그 발달에, 어떤 사람은 경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별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어떤 관점 아래에서 쓰인 것인데, 사학자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관점이 모두 건전한 것은 아니므로 역사적 설명은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역사적 설명 가운데에는 보다 정확하고 합당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 3. 개념에 대한 예를 들어라.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일상적 삶에 역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사적으로 그 자신의 역사를 창조한다. 이것이 역사적 사고이다. 이 점에 대해 알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사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피하기도 한다. 그런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4. 개념을 다른 교과에 있는 유사한 개념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추나 은유를 사용하라.**

우리는 역사와 소설을 비교할 수 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해 설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소설은 그곳에서 그 당시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은 19세기 미시시피 강 주변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19세기 중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해준다. 존 스타인 벅의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에 가뭄으로 고생하는 미국 가난한 농부의 삶을 설명한다. 역사와 소설에는 모두 주인공이 있고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있다. 둘 다에서 사건과 결정이 지닌 함축은 매우 중요하다.

**5. 그 개념을 같은 교과 내 다른 중요 개념과 연결하라.**

역사라는 개념은 시간, 변화, 성장, 진보, 갈등, 혁명, 진화, 영원, 사회중심주의, 사회관습, 기득권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탐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열쇠이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낭비와 전쟁, 승리와 고통, 일의 시작과 성장 및 변천 그리고 종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6. 5번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라.**

역사는 단기적, 장기적 패턴을 드러낸다. 역사적으로 백년 혹은 수천 년간 지속된 문명들이 있었다. 우리는 전쟁과 고통이 만연되어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강국이 약소국을 지배했다는 것을 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 2단계 : 중심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하기의 보기 2

(이번에는 생물학의 중심개념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 1. 개념의 의미를 간단하게 진술하라.

생물학이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다. 생물학의 기본 목표는 모든 생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 2. 교과에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진술하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 이상의 생명체가 가진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생명체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 (1) 그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2) 세포는 DNA와 RNA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계획을 수행하는 물질이다. (3) 세포는 물질대사라고 불리는 과정을 수행하는데, 예측 가능한 화학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시킨다.

### 3. 개념에 대한 예를 들어라.

생물학적 사고란 세상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서 보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를 복잡한 생태계의 부분으로 파악한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색과 구조와 기능을 탐색한다.

### 4. 개념을 다른 교과에 있는 유사한 개념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추나 은유를 사용하라.

생명체의 개념은 일정한 체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무생물체의 개념이 물리적 체계 속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다. 체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생물학뿐 아니라 모든 과학의 증표이다. 예를 들어 모든 화학자는 세계가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원자들은 발견 가능한 형태로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들은 이런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종

류의 화학 물질을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과 섞거나 노출시키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나오는 화학 반응을 얻게 된다고 본다.

#### 5. 그 개념을 같은 교과 내 다른 개념과 연결하라.

생명체라는 개념은 다양한 수준의 생명체 개념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생명체 개념은 화학분자 수준의 생명체, 세포 소기관 수준의 생명체, 세포 수준의 생명체, 개체군 수준의 생명체, 생태 공동체 수준의 생명체 및 생물권 수준의 생명체 개념 등과 연결된다.

#### 6. 5번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라.

생물학자들은 세포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세포 속에서 세포 기관의 역할, 조직 내에서 세포의 역할, 기관 내에서 조직의 역할, 유기체 구조 내에서 기관의 역할 등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복합체계적인 성격은 모든 과학을 거대한 체계들의 체계로 연결시킨다.

### 2단계 : 중심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하기의 연습

한 학문이나 교과 내에 있는 핵심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활용한 유형에 맞춰 그것에 관한 글을 써라. 좋은 사전, 백과사전, 교재를 참고하라. 이 작업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 글쓰이의 생각을 분석하기

글쓰이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글쓰이의 생각이 갖고 있는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문장들을 활용해보자.

1. 글쓰이의 **목적**은 \_\_\_\_\_이다.
2. 글쓰이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_\_\_\_\_이다.
3. 글쓰이가 사용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_\_\_\_\_이다.
4. 글쓰이가 시도한 **추론**은 \_\_\_\_\_이다.
5. 글쓰이가 글을 쓰는 데 사용한 중심 **개념**은 \_\_\_\_\_이다.
6. 글쓰이의 추론에 깔려 있는 **전제**는 \_\_\_\_\_이다.
7. 글쓰이의 관점이 **함축**하는 것은 \_\_\_\_\_이다.
8. 이 글에 제시된 주요 **관점**(들)은 \_\_\_\_\_이다.

다음에 간략한 발췌문을 두 가지 제시하려고 한다. 부록 A의 모형을 사용하여 글쓰이의 생각이 갖고 있는 논리를 분석해서 써보라. 그런 다음 자신이 쓴 것과 각 발췌문 분석의 보기를 비교하라.

### 글쓰이의 생각 분석하기의 보기 1

#### 뉴스미디어를 개혁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sup>4)</sup>

저널리스트는 대중에게 편견 없는 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과 정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대중은 어떤 글에 공감할지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사회에 대한 중립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비판적인 독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역자 주 : Paul, R. and Elder, L.(2002) 이 시리즈 중 하나인 '어떻게 매체의 허와 실을 구별해야 하는가' 에서 발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자가 그들의 글을 ‘편견’이나 ‘왜곡’ 혹은 ‘정치적 선전’ 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무책임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자 자신의 관점으로 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글을 쓰는 이스라엘 저널리스트를 상상할 수 있는가? 인도에 대해 공감하는 글을 쓰는 파키스탄 저널리스트를 상상할 수 있는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저널리스트들 역시 자신의 뜻대로 기사를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들은 독자가 원하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즉, 그들의 기사는 그가 속한 사회의 본질과 신념, 가치, 그리고 그 구성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혹은 자기사회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관점을 넓히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찬양하면서 그에 따르고자 한다. 축구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홈팀이 이기기를 바라며, 자신의 팀이 이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혹 자신의 팀이 진다하더라도 그들은 그 경기가 별로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더러는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심판이 자기 팀에 불공정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대중이 그들의 관점이나 열정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주는 뉴스를 선호하는 한 신문이 어떤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그 논리는 한 국가의 식습관을 개혁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다수의 사람이 고지방함유 식품을 원하는 한 시장은 그들에게 그것을 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회중심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기사를 원하는 한, 또한 선과 악이라는 견지에서 세상을 표현하는 단순한 기사를 원하는 한 뉴스미디어는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종류의 기사를 만들어낼 것이다.(여기서 선이란 독자들의 관점에서 선인 것이고 악이란 독자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가진 편견과 열정을 주기적으로 강화해주는 뉴스 자료는 계속 이익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 역시 계속 치솟을 것이다.

## 1. 이 사설의 주요 목적

뉴스미디어는 관행적으로 독자들의 선입견을 유지하면서 뉴스를 왜곡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관행은 잘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이 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

뉴스미디어를 개혁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 3. 이 사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 1) 최근 뉴스미디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 (1) 뉴스미디어는 그들을 사주는 독자의 관점에 맞도록 이야기를 왜곡한다.
  - (2) 뉴스미디어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 2) 뉴스미디어가 좀 더 지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정보
  - (1) 뉴스미디어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2) 뉴스미디어는 사회에 대한 중립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 4. 이 글의 주요 추론

“기득권을 가진 대중이 그들의 관점이나 열정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주는 뉴스를 선호하는 한” 뉴스는 편파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뉴스미디어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가 가진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강화해주어야 계속 자신들의 신문을 사서 볼 것이다. 그러므로 뉴스미디어는 독자의 시각에 맞게 사건을 끊임없이 왜곡할 것이다.

## 5. 이 글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이끄는 주요 개념

편견적 저널리즘과 비편견적 저널리즘, 자기중심주의, 사회중립주의, 정치적 선전(각 개념은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주요 전제

뉴스미디어를 뒤에서 조종하는 힘은 이윤 획득이다. 그러므로 뉴스미디어는 좀 더 많은 신문을 팔기 위해서 독자의 시각을 왜곡하고 선동한다. 그러나 뉴스미디어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7. 이 생각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뉴스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뉴스미디어가 어떻게 독자의 편견에 맞도록 이야기를 왜곡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자기사회중심적인 관점이 뉴스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강화되고 왜곡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8. 이 글에 나타난 주요 **관점**

뉴스미디어의 주관심사는 이윤의 획득이기 때문에 뉴스미디어는 독자나 사회의 편견을 조장하도록 뉴스를 구성한다.

# 글쓴이의 생각 분석하기의 보기 2

다음은 분석을 위한 보기 글이다.(부록 A의 분석모형을 활용하라.)

## 사이비 윤리의 문제

사회중심적 허상으로서의 윤리 추론

능숙한 윤리사상가들은 보통 윤리와 사회관습(관습적 사고), 종교(신학적 사고), 정치(이데올로기적 사고), 그리고 법률(법적 사고)을 구별한다. 하지만 대개는 윤리를 이와 같은 다른 양식의 사고와 혼동한다. 예를 들면 아주 다르고 서로 대립되는 사회가치 및 금기가 마치 보편적 윤리 원칙인 양 다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규칙' 및 법률 등이 마치 윤리인 양 잘못 다루어지고 있다. 만일 이들을 혼동한다면 종교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회 규칙 역시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법 역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종교가 윤리라면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도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불신자를 고문하거나 산 채로 화형하는 것과 같은 것까지도 말이다. 만약 윤리와 관습을 하나로 본다면 모든 사회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의무가 될 것이다. 나치 군대의 사회적 관습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전통, 규칙, 관습, 금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난하지 못했다. 그것들이 윤리적인 파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구나 법이 윤리로 정의된다면 정치인과 법률가들은 윤리적인 전문가들로 간주될 것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모든 법률은 도덕적 진리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윤리와 위의 사고 양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제도, 종교 행위, 정치적 사상, 법률 등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윤리적 추론을 능숙하게 할 수 없다.

▶윤리원칙과 신학적 신념을 혼동한 예

- 종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신념을 강요한다.
-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학적 신념을 자명한 진리로 여겨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한다.
- 종교인들은 '죄'가 신학적 개념이지 윤리적 개념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한다.

(‘죄’는 신학적으로 정의된 것이다.)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 종교집단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모두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한다. 왜냐하면 죄를 보편적 윤리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리와 사회적 관습을 혼동하는 예

-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이는 것을 금기시하며 그 금기를 어겼을 때는 심하게 처벌해온 사회가 많다.
-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반대해온 사회가 많다.
- 종교적 박해를 사회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사회가 많다.
- 다른 인종 간 결혼을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사회가 많다.

▶윤리와 법을 혼동하는 예

- 여러 성적 행위(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 종신형 또는 사형으로 부당하게 처벌해온 사회가 많다.
- 인종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불공정한 법을 시행하는 사회가 많다.
-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가 많다.
- 아이들을 차별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가 많다.
- 고문이나 노예제도를 합법화해온 사회가 많다.
-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의약품 사용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 온 사회가 많다.

1. 이 글의 주요 목적

독자들로 하여금 윤리는 다른 사고 양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종교, 사회관습, 법률과의 혼동은 더욱 그렇다.

2. 글쓴이가 제시하는 주요 질문

윤리는 다른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3.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 1) 윤리적 원칙과 신학적 신념을 혼동하는 예 : 종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신념을 자주 강요한다.
- 2) 윤리와 사회적 관습을 혼동하는 예 : 다양한 신체 부위를 보이는 것이 금지된 사회가 많다. 그런 나라에서는 금기를 어기는 사람이 강력히 처벌된다.

3) 윤리와 법을 혼동하는 예 : 어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적 행위(예를 들면 동성애)가 사회의 법률에 의해 중신형이나 사형으로 부당하게 처벌되어 왔다.

#### 4.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추론(결론)

윤리와 혼동되는 다른 사고 양식을 꼭 구별해야 한다. 윤리와 다른 사고 양식을 구별해야 다른 사고 양식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 5. 이 글에서 글쓴이의 추리를 이끌어주는 핵심 개념

윤리적 추론, 사회적 관습(관습적 사고), 종교(종교적 사고), 정치(이데올로기), 법률(법률적 사고)

#### 6. 글쓴이의 추리에 깔려 있는 주요 전제

윤리는 다른 양식의 사고와 혼동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 추론과 다른 양식의 추론을 구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윤리를 신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법률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윤리를 다른 양식의 사고와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종교나 사회적 제도가 한 사회에서 무엇이 윤리적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7. 이 글에서 나타난 주요 관점

사람들은 윤리와 다른 양식의 사고를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 행위에서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데 잘못된 기준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 ✎ 글쓰이의 생각을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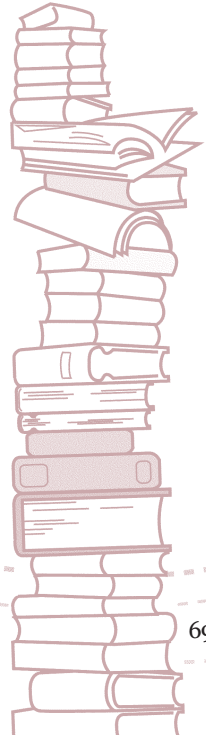
모든 글은 수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쓴 글에 대해 생각의 표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다. 생각의 표준이란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는 진술하였지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는 적절하지만 깊이가 있게 다루지 못하여 문제의 복합성을 놓칠 수도 있다. 논증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추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 글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 의미는 **명료**하게 진술되었는가? 아니면 글이 모호하거나 혼동되거나 혼란스러운가?
2. 주장이 **정확**한가?
3. 충분히 구체적이고 **정밀**하였는가?
4.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부적절**한 자료는 없는가?
5. 독자에게 주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복합성을 밝혔는가? 아니면 **피상적**인가?
6. 글에 나타난 관점이 전반적으로 너무 **편협**하지는 않은가?
7. 글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가?
8. **중요**한 것을 말했는가? 사소한 면을 다루지 않았는가?
9. **공정**했는가? 편협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는가?

## 글쓰이의 생각 평가하기의 연습

앞에서 든 두 글( '뉴스미디어를 개혁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와 '사이버 윤리의 문제' )의 논리를 부록 B에 나온 모형에 따라 평가하라.



## 부록 A : 사설의 논리

에세이나 사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생각의 표준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모형이다.

### 1. 이 사설의 주요 **목적**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사설에서 의도한 바를 최대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글쓴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2.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글을 썼을 때 마음속에 두었던 핵심 질문을 파악해내야 한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 3. 질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_\_\_\_\_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가정한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과 경험, 그리고 자료 등을 찾아보라.

### 4. 이 글에 나타난 핵심 **추론**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이끌어내거나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 5. 이 글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_\_\_\_\_이다. 그 개념의 의미는 \_\_\_\_\_.

글쓴이의 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쓴이가 이러한 개념으로 나타내고자 한 의미는 무엇인가?

###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전제**는 \_\_\_\_\_이다.

문제가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당연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

란 글쓴이가 글 속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일반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대개 전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글쓴이의 생각은 대부분이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출발한다. 그러므로 전제를 찾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7a.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_\_\_\_\_을 함축한다.**  
만약 사람들이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여기서는 글쓴이의 생각이 가진 논리적인 함축을 찾아내야 한다. 글쓴이가 얘기한 함축은 물론 얘기하지 않은 함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7b.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_\_\_\_\_을 함축한다.**

사람들이 글쓴이의 추론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8. 이 글에 나타난 중요한 관점(들)은 \_\_\_\_\_이다.**

글쓴이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우리는 ‘분석’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문제나 쟁점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으레 생각의 8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의 구조가 글쓴이의 글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글쓴이의 생각을 거의 글쓴이와 같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구조는 모든 생각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기본 구조이다. 또한 이는 생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 부록 B :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하기

1. 글쓴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가, 아니면 함축적인가? 그것은 적당한가?
2. 글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 질문이 잘 드러나 있는가, 아니면 함축적인가? 그것은 명료하고 공정한가? 질문이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3. 글쓴이가 제시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는 적절한 증거와 경험을 들고 있는가? 쟁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인용하고 있는가? 그 정보는 정확하며 현안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가? 글쓴이는 쟁점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4. 글 속에 나타난 중요한 **추론**이나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는 자신이 제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결론을 내렸는가? 아니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결론으로 비약하였는가?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결론들도 함께 고려하였는가? 글쓴이는 건전한 추론을 통해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추론에서 허점이 발견되는가?
5. 글쓴이의 생각에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는 핵심 개념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가? 사용된 개념은 적당한가?
6. 글쓴이의 **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는 자신이 당연시하고 있는 전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민감한가? 아니면 자신의 전제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전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7. **함축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는 자신이 택한 결정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민감한가?
8.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 글쓴이는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 민감한가? 글쓴이는 자기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반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가?



## 부록 C :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방법

글쓰기는 학습에 꼭 필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교사들 대부분은 과도한 평가 업무 때문에 쓰기 과제를 꺼린다. 그러나 모든 교과에서 과중한 평가를 하지 않고도 글쓰기 수업이 가능하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자기 글을 모아 포트폴리오로 만들게 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그 모음집을 학교에 가져오게 한다. 셋째, 친구들과 함께 아래에 마련된 활동을 통해 양질의 상호 평가를 하게 한다. 넷째, 상호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첨부 B와 같은 추리평가지침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시해준다. 다섯째, 교사는 모음집의 글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글은 친구들이 자주 검토하는 셈이며, 교사는 개별 학생의 글을 정기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첫째 전략** 우선 평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3~4명이 한조가 되어 자신의 글을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천천히 읽는다. 그리고 나서 글이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한다. 모든 의견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제시한다.

**둘째 전략** 평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네 명이 한조가 되어 최우수 글을 선정한다.(명료함, 논리 등뿐 아니라 교사가 제시한 특별한 기준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두 조가 모여 최우수 글을 뽑는다. 여덟 명이 선정한 최우수 글을 전체 학생 앞에서 낭독하게 한다. 교사 지도하에 발표된 글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서 그날의 최우수 글을 뽑는다.(명백한 지적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셋째 전략** 평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3~4명이 한조가 되어 다른 조가 쓴 3~4편의 글에 대해 침삭할 부분을 찾아보고 제시해보라고

한다. 모든 제안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원래 쓴 학생에게 다시 돌려준다. 글을 쓴 학생은 다음 시간까지 친구들의 제안을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수정해 온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급의 모든 학생은 다른 조 친구들에게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다.

#### 넷째 전략

평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교사는 한 학생의 글을 크게 천천히 읽게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모든 제안은 건설적이어야 하고,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토론은 평가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이다. 전체 토론이 끝나면 학생들은 2~3명씩 조를 만든다. 각 조는 전체토론을 상기하면서 교사가 보여준 평가모형에 따라 자기 조원의 글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한다.

학생들은 교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글이 어떻게 평가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한다. 이때 교사는 모델로서 안내자로서 감독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제에 대한 평가로 과도한 짐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참고도서

Frankle, Viktor E.(1959).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NY, NY:Washington Square Press.

McWilliam, Peter.(1996). 자유사회에서의 합의적 범위가 가진 불합리성. Los Angeles, CA: Prelude press, pp.3,7.

## |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sup>5)</sup> |

### ◎ ‘제대로 쓰기’

표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쓰기이다.

#### 1. 필요성

- 표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 중심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 지식의 체계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 2. 기본자세

- 표현할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써라.
- 목적을 분명히 하고 써라.
- 생각의 8요소와 9표준을 엄두에 두고 써라.
- 문체나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써라.

#### 3. 다양한 글쓰기 전략

##### 1) 중심생각의 이해에 초점

1 단계 : 문장 바꿔 쓰기

2 단계 : 중심생각 명료화하기

- 네 가지 명료화 전략 : 주제 진술, 상세화, 예 들기, 비유하기

5) 역자 주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했다.

2) 갈등 개념에 초점

1 단계 : 갈등 개념 파악하기

2 단계 : 그에 따른 문제점 밝히기

3 단계 : 자신의 입장(주제) 명료화하기

- 네 가지 명료화 전략 : 주제 진술, 상세화, 예 들기, 비유하기

4 단계 : 가능한 반대 입장

5 단계 : 반대 입장에 대한 나의 생각

3) 중심개념에 초점

1 단계 : 중심개념 명료화하기

- 네 가지 명료화 전략 : 주제 진술, 상세화, 예 들기, 비유하기

2 단계 : 교과 내의 다른 개념과 연결하기

3 단계 : 2단계의 예 들기

4) 중심생각의 분석에 초점

- 생각의 8요소에 따라 : 목적, 질문, 정보, 추론, 개념, 전제, 함축, 관점

5) 중심생각의 평가에 초점

- 생각의 9표준에 따라 :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

**“제대로 배우려면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 |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hotec) 소개 |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Higher-Order Thinking Education Center:hotec)는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합당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는 세계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폴 교수와 어린이 철학 교육을 이끌고 있는 매튜 립먼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20년 이상 연구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상황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는 대화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학교에서는 탐구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좀더 전문적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차적 사고력 교육은 심도 있는 토론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튼튼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고차적 사고력 교육이 본질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 [www.hotec.co.kr](http://www.hotec.co.kr)

##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3 :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지은이 리처드 폴(Dr. Richard Paul), 린다 엘더(Dr. Linda Elder)  
옮긴이 박진환, 김혜숙  
펴낸이 이상덕  
디자인 아이지미술  
펴낸곳 HOTECH/고차적사고력교육센터

출판신고 제312-2005-000014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5 대림리시온빌딩 207

Tel (02)393-0811, Fax (02)393-0812

e-mail : book@hotec.co.kr

<http://www.hotec.co.kr>

초판 1쇄 인쇄 2006년 4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06년 4월 17일

ISBN 89-957159-4-4

ISBN 89-957159-1-X (세트)

